제주도 어촌의 인구 변화와 관광기능 분포*

- 산업화 시대의 인구와 1990년대 말의 관광기능을 대상으로 -

송경언**

<차례>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제주도의 어업종사자와 어촌인구의 변화
1. 어업종사자 수의 변화
2. 어촌인구의 추이
Ⅲ. 제주도 어촌의 관광기능 분포
1. 낚시어선
2. 수산물 채취·채포 어장
3. 수산물 조리점
4. 민박
Ⅳ. 시사점

국문요약

제주도의 잠재력은 도시뿐만 아니라 촌락에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비교우위는 자연환경에 있고 이는 촌락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촌락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촌락 가운데서도 바다와 땅이 존재함으로써 보다 다양해질 수 있는 어촌을 고찰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시대의 어촌의 인구 변화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제주도 전체 어촌의 관광기능 분포를 살펴보

* 본인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어촌과 관광』(2006)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고 사례 어촌을 대상으로 관광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어촌의 인구변화와 관광기능의 분포를 살핀 결과 어촌의 인구변화와 관광기능 중 수산물 조리점은 중심도시와의 거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광기능 중 민박, 체험어장, 낚시어선의 분포는 해당 자원의 분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사례어촌의 관광기능에 대한 조사결과, 관광개발의 파급효과를 높이려면 지역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어촌의 관광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어촌 관광의 특화와 네트워킹이다.

주제어 : 어촌, 관광어촌, 특화, 네트워킹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주도 관광은 관광비용이라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 원격지라는 불리함이 있는 반면, 관광 매력도라는 품질 경쟁력에 있어서는 원격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 제주도 관광개발의 방향은 관광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1970년대의 제주도 관광개발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국제적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것은 생태보전보다는 관광개발을 지향하는 대규모 시설 중심의 '중문관광단지'이다. 이는 1970년대의 국가 경제개발의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육지부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상철, 1998). 1980년대에는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의 개발은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1980년대 개발 방향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의 주체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부문도 참여하였으나, 이 둘의 참여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는 관광단지와 관광지를 지정하여 개발

하는 방식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설 중심의 관광개발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관광개발은 시행하기에 편하고 개발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단지개발에 안주하기 쉽다. 선진국의 경우 대규모 위락·관광단지 개발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국가나 지방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 남부 지중해연안의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은 지금은 현지에서는 실패 사례로 손꼽히고, 일본에서도 1970년대에 유행처럼 만들어졌던 대규모 리조트단지들이 대부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여 부도나고 있다(유우익, 2005).

시설 위주의 획일적인 관광개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도시 보다는 촌락에서 많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촌락은 도시에 비해 보다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촌락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 촌락 가운데서도 바다와 땅이 존재함으로써 보다 다양해질 수 있는 어촌을 고찰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어촌 관광이 그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기도 하다. 제주도의 잠재력은 도시뿐만 아니라 촌락에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비교우위는 자연환경에 있고 이는 촌락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촌의 공간적 단위를 행정리 또는 법정동으로 하고, 소규모 어항이 존재하는 곳을 어촌으로 본다면,[1] 제주도 어촌 수는 모두 97곳이다. 이는 제주도의 행정리 또는 법정동 전체 235곳의 41.3%에 해당된다. 그리고 관광기능이 분포하는 제주도 어촌은 모두 67곳으로, 전체 어촌 97곳 중에서 69.1%를 차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어촌의 인구 변

1) 어항을 끼고 있는 소도읍은 어촌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제주도 중심도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규모 및 기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어촌에 포함시켰다.

화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시점은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 무렵을 기준으로 했다. 이는 변화 파악의 과거 시점이 1960년대 말이므로 30년 동안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산업화 시대의 변화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의 연구목적은 제주도 전체 어촌의 관광기능 분포를 살펴보고, 사례어촌을 대상으로 관광기능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관광기능의 지역화란 관광기능이 해당 지역과 밀착되는 것으로, 그 지표로는 관광관련 활동의 어업활동과의 관련성과 관광관련 활동 종사자의 거주활동의 공간적 결합도를 이용하고자 한다. 관광관련 활동의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은 관광활동이 어업활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와 어업생산물의 이용 정도로써 파악될 수 있다. 관광관련 활동 종사자의 거주활동의 공간적 결합도는 공간적 거주양식에 있어 관광관련 활동 종사자의 거주활동이 어촌공간과 통합되어 있지 않을 때가 통합되어 있을 때보다 주민소득의 역외유출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유우익, 1988). 한편 관광기능 고찰의 기준연도는 대체로 1990년대 말에 해당되고[2], 이는 인구변화 고찰의 기준연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Ⅱ. 제주도의 어업종사자와 어촌인구의 변화

1. 어업종사자 수의 변화

1) 어업종사자

어업종사자 수의 변화는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2) 사례어촌의 관광기능에 대한 일차자료 조사의 기준연도는 2000년이다.

살피고자 한다. 첫째, 어업종사자 수의 시간적 변화이다. 1966~1998년 기간의 전국 어업종사자, 제주 어업종사자, 제주 잠수 등의 감소율은 각각 70.0%, 75.6%, 76.7%로 제주의 어업종사자와 잠수가 전국에 비해 약간 더 감소하였다<표 1>.

〈표 1〉 제주도의 어업종사자 추이

(%)는 앞 시기에 대한 감소율

연 도	전 국	제 주	제주 잠수
1966	575,665	31,672	24,268
1970	367,645(36.1)	23,985(24.3)	14,143(41.7)
1975	322,911(12.2)	20,572(14.2)	8,402(40.6)
1980	323,166(-0.1)	12,216(40.6)	7,804 (7.1)
1985	260,326(19.4)	11,320 (7.3)	7,649 (2.0)
1990	211,753(18.7)	10,837 (4.3)	6,827(10.7)
1995	176,485(16.7)	9,463(12.7)	5,886(13.8)
1998	172,701 (2.1)	7,728(18.3)	5,646 (4.1)

자료 : 제주도, 2000, 1999년도 해양수산현황.

제주도 잠수어업 종사자는 1960년대 후반기와 1970년대 전반기에 급격히 감소하였고<표 1>, 연령별 구성비에 있어서는 20대 이하가 1970년대에, 30~40대는 1980년대 이후에 많이 감소하였다<표 2>. 연령별 구성비의 감소 시기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제주도 잠수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

단위 : 명, %

연 도	1970	1980	1990	1998
잠수 수	14,143	7,804	6,827	5,646
~20대	31.3	9.8	4.3	0.2
30대~40대	54.9	60.7	44.2	29.1
50대~	13.8	29.5	51.5	70.7

자료 : 북제주군, 2000, 북제주군지 p.219.

잠수어업 종사자의 감소 요인은 잠수활동 이탈요인과 잠수어업을 대체한 생산활동의 흡인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필 수 있다. 잠수활동 이탈요인으로는 나잠어업에 대한 사회적 경시 풍조이고, 다른 생산활동의 흡인요인은 연령별,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 잠수활동을 대체한 생산활동의 흡인요인으로는 20대 이하의 잠수 구성비가 감소한 1970년대에는 어촌 외부의 산업화, 30~40대의 잠수 구성비가 많이 감소한 1980년대 이후에는 어촌 내부의 감귤을 비롯한 상업적 농업화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어업종사자 수의 공간적 차이로, 이는 1995년 기준 전체 가구에 대한 어업가구 수의 비율[3]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읍·면 가구에 대한 어업가구 수의 비율은 섬인 우도(66.9%)와 추자도(32.5%)는 각각 2/3, 1/3 정도이고, 섬을 제외한 곳 중에서는 북제주군 구좌읍(21.1%)과 남제주군 성산읍(17.9%)이 대략 1/5 정도씩으로 가장 높다.

3) 해양수산부, 1995, 어업총조사보고.

2) 어촌계원

행정리·법정동별 어촌계원 추이를 통해 제주도 어촌별 어업종사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3, 그림 1>.[4]

먼저 시·군 단위의 어촌계원 변화를 살펴보면, 1966~1997년의 기간 동안 제주도 어촌계원 수는 25.3% 증가하였는데,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의 어촌계원 증가율이 각각 48.1%와 29.1%로 제주도 평균보다 높은 반면, 제주시와 남제주군은 각각 15.0%와 18.0%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읍·면 단위에서는 남제주군의 대정읍(180.5%)과 안덕면(160.8%), 북제주군의 우도면(81.1%)과 구좌읍(69.6%) 등이 증가한 반면, 북제주군의 애월읍(-26.9%), 추자면(-12.3%), 조천읍(-10.6%), 남제주군의 성산읍(-19.7%)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시·군과 읍·면 단위의 어촌계원은 대체로 중심도시 특히 제주시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해왔다고 할 수 있다.

행정리 단위의 어촌계원 추이에 대한 분석은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표 3>과 <그림 1>의 군부(郡部) 어촌의 어촌계원 추이에 있어 변화율과 평균간 편차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평균과 표준편차[5]를 각각 m과 sd라 하고, 어촌계원의 변화율이 m+1sd 이상이거나 m-1sd 미만인 어촌을 살필 수 있다.

---

4) 행정리·법정동 단위의 어업종사자에 대해 파악이 가능한 자료로는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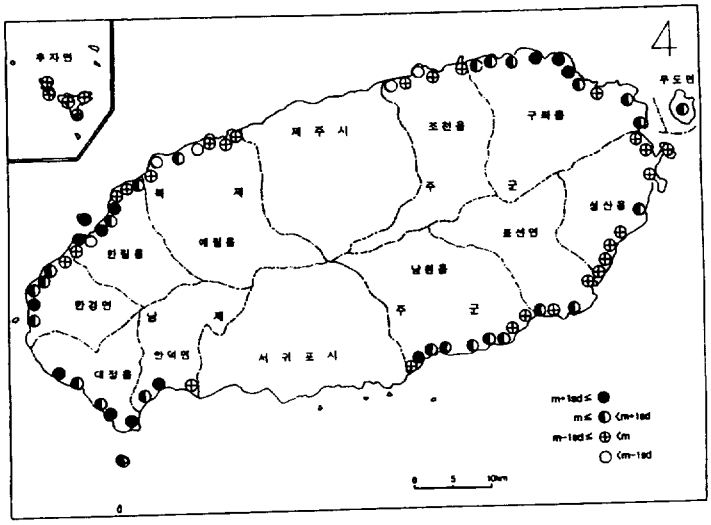
5) 어촌계원 수 변화율의 표준편차는 북제주군 69.43, 남제주군 275.45 등이다.

〈표 3〉 군부(郡部) 어촌의 어촌계원 수의 변화율(리 단위)

어촌계원 수의 변화율	북제주군	남제주군
어촌계원≥m+1sd	한림읍 옹포 금능 비양 한수 구좌읍 한동 행원 월정 한경면 용수	대정읍 상모1·2·3 하모1·2·3 신도2 남원읍 신례2 안덕면 화순
m−1sd≤어촌계원 <m+1sd	한림읍 월령 귀덕1 귀덕2 수원 애월읍 구엄 고내 곽지 구좌읍 종달 하도 세화 평대 동김녕 서김녕 동복 조천읍 북촌 함덕 조천 한경면 고산1 신창 추자면 대서 영흥	대정읍 동일1·2 일과2 남원읍 위미1 하례1 태흥1 태흥2 신흥1 성산읍 성산 오조 시흥 신산 고성·신양 신천 온평 표선면 표선 하천 세화2 토산2
어촌계원<m−1sd	한림읍 협재 애월읍 신엄 애월 조천읍 신흥 신촌	

주 : m은 평균이고, sd는 표준편차임.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67, 1997, 어촌계현황.

어촌계원 변화율이 m+1sd 이상인 곳은 한림읍의 옹포리, 금능리, 비양리, 한수리, 구좌읍의 한동리, 행원리, 월정리, 한경면 용수리, 대정읍의 상모1·2·3리, 하모1·2·3리, 신도2리, 남원읍 신례2리, 안덕면 화순리 등인 반면, m−1sd 미만인 곳은 한림읍 협재리, 애월읍의 신엄리, 애월리, 조천읍의 신흥리, 신촌리 등이다.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체로 제주시 및 서귀포시로부터 멀리 위치한 반면, 감소율이 높은 곳은 제주시와 가까운 편으로,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 영향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주 : 범례에 있어 m은 군별 평균이고, sd는 군별 표준편차임.
자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67, 1997, 어촌계현황.

〔그림 1〕 군부(郡部) 어촌의 어촌계원 수 추이(1967~1997년)

2. 어촌인구의 추이

어촌공간을 구성하는 어업공간과 생활공간의 변화 특성을 각각 어촌계원과 인구의 수로써 살펴보고, 어촌공간의 특성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의 인구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어촌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자 한다. 어촌은 어업공간이 공동이용되고, 공동작업이 많이 이루어진다. 즉, 어장과 어항은 대개 공동으로 이용하며, 어로활동은 어선을 이용하므로 공동 작업이 불가피하다. 공동이용과 공동작업은 대체로 소규모 어항을 단위로 이루어지며, 소규모 어항을 끼고 있는 촌락은 중심어촌[6]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항을 끼고 있는 촌락은 어촌 기초생활권에 있어 생산의 중심이나 생활의 중심으로는 보기가 어려워 이를 중심어촌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관광어촌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가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어촌공간에 대한 구분은 어업활동의 중심인 중심어촌과 그렇지 않은 배후어촌으로 나누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이차자료 분석을 위해 어촌으로 간주된 공간적 범위는 소규모 어항이 분포하는 행정리 또는 법정동 단위이다[7]. 이러한 어촌공간은 중심어촌은 포함되나 배후어촌이 명확하게 선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후어촌의 어업종사자 비중은 중심어촌보다 매우 적으므로 이차 자료 분석을 위한 어촌의 단위를 행정리 또는 법정동으로 하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1) 어촌계원과 어촌인구의 비교

어촌계원과 어촌인구의 추이는 각각 생산공간(어업공간)과 생활공간의 변화와 관련된 지표이다. 어촌의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산업화와 관광촌화이며, 산업화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어촌 외부에서, 관광촌화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어촌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어촌계원과 인구수의 비교 시기를 1967~1997년으로 하는 것은 산업화와 관광촌화의 영향을 모두 살필 수 있게 한다.

북제주군은 남제주군에 비해 어촌계원 수는 더 증가하였으나, 어촌공간 인구수는 더 감소하였다. 이는 제주도 농촌지역을 지탱해주었던 감

6) 중심촌락 가운데 어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중심촌락이란 초등학교 학구 단위의 기초 생활권의 중심에 해당되는 마을이다.

7) 소규모 어항의 분포에 대한 파악은 「제주의 포구」(제민일보, 1992년 6월~1995년 1월) 자료를 이용했다.

귤재배가 북제주군이 남제주군보다 덜 이루어지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8] 그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비교에 있어서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간 비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서귀포시는 어촌계원 수에서는 제주시보다 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인구수에서는 제주시보다 1/3 정도의 증가에 그쳤다. 이는 도시규모에 있어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작은 것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9]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있어 행정리 단위 어촌공간의 어촌계원과 인구수의 변화에 대한 비교는 <표 3, 4>와 <그림 1, 2>의 행정리별 어촌계원과 인구의 추이에 있어 변화율의 범위가 m+1sd 이상이거나 m−1sd 미만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어촌계원의 추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분석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어촌인구의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4〉 군부(郡部) 어촌의 인구 수의 변화율(리 단위)

인구 수의 변화율	북제주군	남제주군
인구변화율≥m+1sd	한림읍 한림1 애월읍 하귀1 하귀2 조천읍 신촌	남원읍 위미2 · 3 태흥3 남원1
m−1sd≤인구변화율 <m+1sd	한림읍 월령 귀덕1 귀덕2 수원 애월읍 구엄 고내 곽지 구좌읍 종달 하도 세화 평대 동김녕 서김녕 동복 조천읍 북촌 함덕 조천 한경면 고산1 신창 추자면 대서 영흥	대정읍 동일1 · 2 일과2 남원읍 위미1 하례1 태흥1 태흥2 신흥1 성산읍 성산 오조 시흥 신산 고성 · 신양 신천 온평 표선면 표선 하천 세화2 토산2

8) 두 지역의 감귤재배 면적은 1997년 북제주군은 6,664ha, 남제주군은 10,585ha 등으로 북제주군이 남제주군보다 훨씬 작다.

9) 두 도시의 규모를 인구수로써 살펴보면 1997년 서귀포시는 84,976명, 제주시는 266,316명 등으로 서귀포시가 제주시의 1/3 정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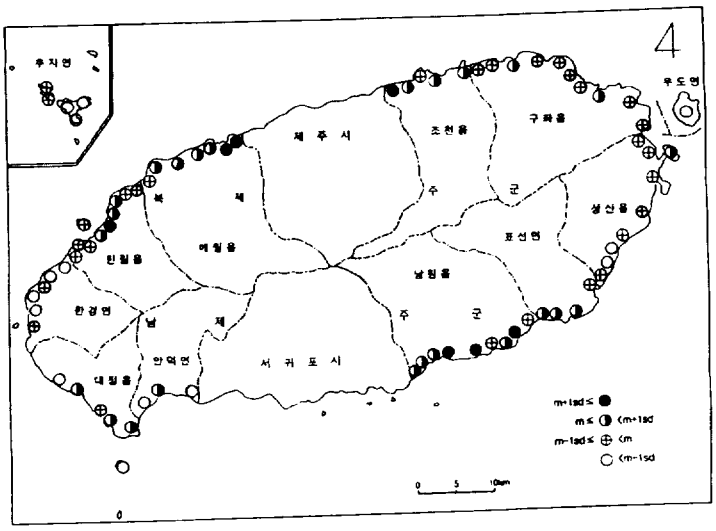
인구변화율＜m－1sd	한경면 판포 두모 용당 용수 추자면 묵 신양1·2 예초 우도면	대정읍 가파·마라 신도2 성산읍 삼달2 신풍 안덕면 대평 사계

주 : m은 평균, sd는 표준편차임. 평균은 북제주군 -18.0%, 남제주군 -4.4%이고, 표준편차는 북제주군 29.00, 남제주군 24.11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67년, 1997년.

어촌 인구의 변화율이 m+1sd 이상인 곳은 한림읍 한림1리, 애월읍의 하귀1리, 하귀2리, 조천읍 신촌리, 남원읍의 위미2·3리, 태흥3리, 남원1리 등인 반면, m－1sd 미만인 곳은 한경면의 판포리, 두모리, 용당리, 용수리, 추자면의 묵리, 신양1·2리, 예초리, 우도면, 대정읍의 가파·마라리, 신도2리, 성산읍의 삼달2리, 신풍리, 안덕면의 대평리, 사계리 등이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율 차이는 대체로 소도읍을 제외하면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 영향을 받아 가까운 곳은 증가율이 높은 반면, 멀리 떨어진 곳은 감소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그리고, 어촌계원과 인구의 변화율 범위가 모두 m+1sd 이상이거나 m－1sd 미만인 곳은 조천읍 신촌리, 한경면 용수리, 대정읍 신도2리 등이다. 이 가운데 어촌계원이 많이[10] 감소하고 인구가 많이 증가한 곳은 제주시와 가까운 조천읍 신촌리인 반면, 어촌계원이 많이 증가하고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경면 용수리와 대정읍 신도2리이다.

10) 많다는 것의 기준은 m－1sd 미만 또는 m+1sd 이상일 때로 본 것이다.



주 : 범례에 있어 m은 군별 평균이고, sd는 군별 표준편차임.
자료: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67년, 1997년.

〔그림 2〕 郡部 어촌의 인구 수 추이(1967~1997년)

요컨대, 제주도 어촌의 어촌계원과 인구수의 추이는 중심도시인 제주시 및 서귀포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촌계원 수는 대체로 중심지로부터 먼 어촌공간일수록 더 증가하는 반면, 인구수는 소도읍이 위치한 곳을 제외하고는 더 감소한다. 이는 산업화가 어촌공간의 쇠퇴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점과 관광촌화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그림 1, 2>.

2) 어촌인구와 비어촌인구의 비교

어촌인구와 비어촌인구의 추이<표 5>는 각각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의 변화와 관련된 지표이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어촌공간과 비어

촌공간의 인구수는 모두 감소하였는데, 북제주군의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의 인구는 모두 남제주군보다 더 감소하였고, 두 지역의 비어촌공간은 어촌공간보다 약간씩 더 감소하였다. 그리고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 간 1997년의 인구 비교에 있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어촌공간 인구는 비어촌공간에 비해 각각 2.3배, 1.9배 정도씩이다.

북제주군 전체는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 모두 대체로 1/5 정도 감소하였으나, 조천읍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읍, 구좌읍, 한경면 등은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 모두 감소하였고, 감소율은 한경면, 구좌읍, 한림읍 등의 순서로 낮아진다. 애월읍은 비어촌공간만 1/10 정도 감소하였고, 어촌공간만으로 이루어진 추자면과 우도면은 모두 절반 가량 감소하였다.

남제주군 전체로는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 모두 약간 감소한 편이나, 남원읍과 표선면은 증가하였고, 특히 남원읍은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 모두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 모두 감소한 곳은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등인데, 대정읍은 비어촌공간이, 성산읍은 어촌공간이 훨씬 많이 감소하였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읍·면별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의 인구변화를 종합해볼 때, 중심도시와 가까운 조천읍과 남원읍에서는 두 공간의 인구가 모두 증가한 반면, 중심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한림읍, 한경면, 구좌읍, 대정읍, 성산읍 등에서는 모두 감소함으로써,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가 지배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읍 · 면별 어촌공간과 비어촌공간의 인구변화

〈북제주군〉

		1967년 인구	1997년 인구	변화율(%)
북제주군	어촌공간	83,279	68,242	-18.0
	비어촌공간	39,585	30,185	-23.7
한림읍	어촌공간	14,223	12,847	-9.7
	비어촌공간	8,614	8,204	-4.8
애월읍	어촌공간	11,381	11,781	3.5
	비어촌공간	14,157	12,295	-13.2
구좌읍	어촌공간	22,129	16,223	-26.6
	비어촌공간	2,384	1,954	-18.0
조천읍	어촌공간	15,710	16,866	7.4
	비어촌공간	2,574	2,845	10.5
한경면	어촌공간	9,707	5,348	-44.9
	비어촌공간	8,256	4,887	-40.8
추자면	어촌공간	6,493	3,314	-49.0
우도면	어촌공간	3,636	1,863	-48.8

〈남제주군〉

		1967년 인구	1997년 인구	변화율(%)
남제주군	어촌공간	53,538	51,133	-4.4
	비어촌공간	30,803	27,518	-10.6
대정읍	어촌공간	13,267	12,869	-3.0
	비어촌공간	8,945	6,584	-26.4
남원읍	어촌공간	12,623	14,794	17.2
	비어촌공간	4,986	6,033	21.0
성산읍	어촌공간	12,916	10,605	-17.9
	비어촌공간	5,915	5,697	-3.7
안덕면	어촌공간	8,415	5,997	-28.7
	비어촌공간	6,646	4,810	-27.6
표선면	어촌공간	6,317	6,868	8.7
	비어촌공간	4,311	4,394	1.9

주 : 어촌공간은 소규모 어항이 존재하는 행정리 단위 공간임.

자료: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1967년, 1997년.

Ⅲ. 제주도 어촌의 관광기능 분포

제주도 어촌의 관광기능으로는 낚시어선, 수산물 채취·채포 어장, 수산물 조리점[11](횟집), 민박 등이 있는데, 이들의 분포는 이차자료로써 살펴본다.

한편 이 연구에서 사용된 관광어촌 개념에 대해 규정하고자 한다. 관광어촌이란 어촌의 대표적 생산활동인 어업과 관광이 결합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촌의 관광관련 활동[12] 비중은 주민의 생산활동과 관광활동 특성상 높지만은 않다. 어촌주민의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관광관련 활동이 대체로 기존생산활동과 병행되며, 관광활동 특성에 있어서는 어촌의 관광기능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관광객의 목적지 선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어촌이란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관련 기능이 하나 이상 분포하는 어촌이라 보고자 한다.

1. 낚시어선

1) 제주도 전체

제주도의 낚시어선은 2001년 현재 157척으로 1995년의 161척[13] 정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낚시어선에 의해 바다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어촌을 취미형과 체험형 낚시 어촌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표 6>.

---

11) 횟집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12) 관광활동과 관련된 주민 생산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3) <표 6>에 있어 1995년의 제주도 낚시어선 수인 142척이 제주시 등을 제외한 수치이므로, 1995년의 제주시 낚시어선 수를 2001년의 19척과 동일하다고 하면 1995년의 제주도 낚시어선은 총 161척으로 볼 수 있다.

특수 어종이 관광 매력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취미형[14] 낚시는 대체로 도서어촌, 소도읍 어항이나 낚시터를 끼고 있는 어촌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도서어촌[15]으로는 추자도와 우도, 소도읍 어항 어촌으로는 한림리, 낚시터 어촌으로는 고산리, 사계리, 북촌리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어종보다 체험 자체를 더욱 중시하는 체험형 낚시는 함덕리, 이호동 등의 해수욕장 인접어촌에서 많이 나타난다. 한편, 사례어촌인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1리는 특수 어종을 위한 취미형 낚시뿐만 아니라, 체험형 낚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곳이다.

〈표 6〉 제주도 어촌계별 낚시어선의 분포 변화[16]

소재지	어촌계	낚시어선 수		소재지	어촌계	낚시어선 수	
		1995년[1]	2001년			1995년[1]	2001년
제주도	계	142[2]	157				
북제주군	계	98	86	남제주군	계	41	45
한림읍	옹포리		1	안덕면	사계리	19	14
	한림리		6		화순리		2
	협재리		4	성산읍	오조리	6	
	금능리		1		성산리	13	10
	수원리		1		시흥리		3
한경면	고산리	21	25		온평리		4
	용수리		3		신양리		3

14) 예컨대, 마라도 낚시관광의 매력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은 긴꼬리벵에돔이라 불리우는 어종에서 느껴지는 손맛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15) 우도에 인접한 성산리의 바다낚시도 우도 지경에서 이루어지므로 도서어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6) 1995~2001년 낚시어선 수의 추이에 있어 제주도 전체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우도면, 애월리, 종달리 등에서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감소는 낚시어선 등록을 위한 보험가입 어선 수의 급격한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낚시객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추자면		12	17	대정읍	하모리	3	4
조천읍	조천리		1		가파리		2
	함덕리	15	11	남원읍	위미리		1
	북촌리		6	표선면	표선리		2
우도면		15	3				
애월읍	애월리	11	1	제주시[3]	계		15
	고내리		1		화북동	–	1
	구엄리		1		이호동	–	13
	곽지리		2		삼양동	–	1
구좌읍	종달리	24					
	김녕리		2	서귀포시	계		11
					중문동	3	4
					대포동		3
					법환동	–	4

주 : 1) 남제주군의 기준연도는 1996년임. 2) –은 제외되었음. 3) 1999년 기준임.
자료 : 북제주군, 남제주군: 내부자료
제주시 : 제주도, 1999. "관광 정보",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서귀포시 : 주민 면담

2) 사례어촌

바다낚시가 이루어지는 사례어촌은 '트롤링'[17]이란 바다낚시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이와 연계된 횟집이 많이 분포하는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1리를 선정하였다. 고산1리 어촌의 바다낚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현재 바다낚시를 위해 등록된 어선은 모두 25척으로, 제주도 전체(157척)의 15.9%이고, 북제주군 전체(86척)의 29.1%를 차지한다.[18] 이러한 바다낚시는 해안의 횟집 및 민박과 연계되어 있다.

17) 어선이 미끼를 끌고 가며 물고기를 유인하여 낚는 방법이다.

18) 제주시는 1999년도 자료임. 북제주군, 남제주군: 군별 내부자료. 제주시: 제주도, 1999, "관광 정보",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서귀포시: 주민면담.

고산1리에 포함되는 자연촌락들은 포구가 위치한 마을과 그렇지 않은 마을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곳은 도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 포구가 위치한 마을인 차귀동은 중심어촌에 해당하며, 흔히 자구내라 불리워진다. 차귀동의 인구는 2000년 현재 103명으로 고산1리 2,167명의 1/20(4.8%) 정도에 지나지 않고, 여자는 59명으로 남자 44명보다 15명 많다.

관광관련 활동의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은 관광활동이 어업활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와 어업생산물의 이용 정도로써 파악되는데, 고산1리의 관광관련 활동은 어로어업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 관광관련 활동의 어업 생산물의 이용 정도에 있어서는 횟집에서는 바다낚시객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로어업의 생산물을 이용하지만 바다낚시객이 아닌 경우에는 어로어업의 생산물을 대체로 이용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어로어업의 생산물을 일부 이용하는 셈이 된다.

관광관련 활동 종사자들은 대부분 토착민인데, 관광관련 활동에 종사하고자 이주한 경우는 이곳 주민이 도외(道外)에서 거주하다 다시 귀환 이주하는 경우가 3가구에 이르고, 도내(道內)에서 처가인 이곳으로 이주한 경우가 2가구이며, 그 밖의 이주 가구가 2가구이다. 이러한 관광관련 활동 종사가구의 거주양식에 있어 성장한 자녀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의 거주지가 모두 고산1리이므로 관광관련 활동 종사자의 거주활동은 어촌공간과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수산물 채취 · 채포 어장

1) 제주도 전체

어업활동 체험은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활동으로,

그 대상에 따라 어로활동 체험과 채취·채포 활동 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어로활동의 대표적 체험활동인 바다낚시는 취미형 낚시와는 구분된다. 취미형 낚시는 대중관광 시기인 1980년대에 이미 본격화된 반면, 체험형 낚시는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바다에서 어업활동 체험이 이루어지는 어촌의 해안에는 흔히 수산물 조리점이 분포하는데, 이러한 어촌의 바다와 해안의 관광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체험대상인 어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채취·채포 활동 체험이 이루어지는 어촌에 있어 바다의 관광활동에 대한 인지도는 해안보다도 높은 반면, 낚시활동 체험이 이루어지는 어촌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제주도에서 수산물 채취·채포 활동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이른바 체험어장으로 알려진 곳은 구좌읍 동복리와 구좌읍 종달리이다. 두 곳은 채취·채포 대상 수산물 종류에 있어 차이를 보이며, 이와 연계된 관광관련 활동도 차이를 보인다. 맛조개를 비롯한 조개류의 채포가 주로 여름철에 이루어지는 구좌읍 종달리의 수산물 조리점은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소라와 고둥의 채취가 일시적이지 않은[19] 구좌읍 동복리의 수산물 조리점은 상시적이다.

2) 사례어촌

수산물 채취·채포 어장이 분포하고 있는 사례어촌으로는 맛조개잡이로 이름이 나 있는 북제주군 구좌읍 종달리를 선정하였다.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종달리는 남제주군과 맞닿아 있는 어촌으로, 바다에서의 맛조개잡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해안의

19) 고둥은 연중 채취가 가능한 반면, 소라는 채취금지 기간이 6~9월로 정해져 있다.

관광기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맛조개잡이 어장과 관련된 관광활동은 어업활동의 기술과는 무관하며, 단지 해안의 임시 음식점에서 잠수어업의 생산물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어업활동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바다낚시이고 해안의 수산물 조리점은 어로어업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시작된 바다의 체험형 낚시 관광은 어로와 농사를 병행하는 겸업어업 종사자가 참여하는데, 관광관련 활동은 기존의 생산활동 기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둘은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다. 1990년대 말에 출현한 해안의 수산물 조리점에는 어업종사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존생산활동이 어로, 잠수, 농사 등 여럿이 병행되는데다 해안의 관광활동이 바다와 연계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산물 조리점의 전업 종사자들은 기존활동과 관광관련 활동 병행의 경우와는 달리 모두 이주민이고, 제주시, 인근의 남제주군 성산리와 북제주군 하도리 등에서 통근하고 있다.

3. 수산물 조리점

1) 제주도 전체

1995~2000년의 수산물 조리점(횟집) 분포의 추이를 중심도시와 주변으로, 주변은 어촌과 농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표 7>.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변 가운데 농촌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횟집 대부분이 어촌에 위치해 있으며, 북제주군 어촌의 경우는 2배 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은 횟집의 분포가 광범위해졌고, 그 분포 정도는 중심도시의 규모와 중심도시로부터의 거리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촌과 농촌만을 비교해보면 중

심도시에 인접한 곳에서는 어촌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횟집이 분포하는 반면, 원격지에서는 어촌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

횟집이 많이 분포하는 어촌으로는 제주시의 도두1동, 외도2동, 이호1동, 관광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대포동, 남제주군 성산리, 낚시터 어촌인 북제주군 고산리, 남제주군 사계리, 소도읍 어항 어촌인 북제주군 애월리, 남제주군의 하모리, 화순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횟집은 해안의 대표적 관광기능으로, 해당 어촌의 수산물이 이용되는가에 따라 해당지역 수산자원과의 관련성을 가늠할 수 있다.

2) 사례어촌

수산물 조리점이 위치하고 있는 관광어촌으로는 '중문관광단지'에 인접함으로써 활성화되어 있는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20]을 선정하였다.

〈표 7〉 횟집의 분포 변화

〈제주도 전체〉

년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중심	어촌	농촌	중심	어촌	농촌	어촌	농촌	어촌	농촌
1995년	274	147	18	5	23	10	2	29	0	36	4
2000년	422	203	23	17	37	19	17	55	1	46	4

주 : 중심의 경우 제주시는 일도동, 이도동, 삼도동, 용담동, 건입동, 연동 등으로, 서귀포시는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등으로 봄.

20) 중문동과 대포동의 수산물 조리점은 종사자와 참여형태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문동은 잠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반면, 대포동은 잠수가 아닌 이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한다.

〈어촌〉

소재지	어촌	횟집수		소재지	어촌	횟집수	
		1995년	2000년			1995년	2000년
제주도	계	93	143				
제주시	계	18	23	남제주군	계	36	46
	삼양1동		1	대정읍	마라리		1
	도두1동	6	6		하모리	3	5
	도두2동		1		상모리	2	1
	외도2동	3	6	남원읍	남원리	3	2
	이호1동	4	5		태흥리	2	1
	화북1동	5	4		위미리	2	2
					신례리	4	2
서귀포시	계	10	19		신흥리	2	1
	중문동	2	2	성산읍	성산리	7	9
	하예동	3	3		오조리	1	3
	대포동	2	5		신양리		2
	강정동	3	3	안덕면	화순리	5	6
	보목동		1		사계리	2	5
	하효동		1		대평리	1	2
	법환동		4	표선면	표선리	2	4
북제주군	계	29	55				
조천읍	함덕리	2	3	구좌읍	동김녕리	1	3
	북촌리	2	3		서김녕리	3	
	조천리	1	1		하도리		2
	신흥리		1		월정리		3
애월읍	곽지리	1	2		세화리	1	2
	애월리	2	6		종달리		2
	하귀리	3	3		동복리		3
	고내리		1		한동리		1
	구엄리		1	한경면	고산리	5	3
한림읍	협재리	1	2		판포리	1	1
	금능리		1		신창리	1	
	비양리		1	추자면	영흥리	1	

	귀덕리		5	우도면	천진리	1	2
	수원리		1				
	한림리	2	1				
	옹포리		1				
	한수리	1					

주 : 어촌의 공간적 단위는 법정동과 법정리임.
자료 : 한국통신, 1995, 2000, 전화번호부

서귀포시의 중문동과 대포동 어촌의 관광지화는 마을 내부의 어업관련 관광자원보다는 마을 외부의 '중문관광단지' 입지가 지배적 영향을 미치며, 두 곳의 대표적 관광기능은 모두 해안에 위치하는 수산물 조리점이다. 두 어촌은 인접[21]한 마을이나, 중문동과 대포동의 관광기능은 각각 중문관광단지의 내부와 외부에 위치해 있고 도보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 이러한 두 어촌의 비교를 통해 관광기능의 지역화 정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관광관련 활동의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은 어업활동과의 병행정도와 어업생산물의 이용정도로써 살피고자 한다.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 관광활동이 어업활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 대신에 어업활동과의 병행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사례어촌의 대표적 관광기능인 수산물 조리점에서의 관광활동 자체가 어업활동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업활동과의 병행에 있어 중문동과 대포동의 수산물 조리점 참여자들은 차이를 보인다. 중문동의 수산물 조리점 참여자들은 어업활동과 병행하는 반면, 대포동에서는 수산물 조리점에 전업으로 참여한다. 즉,

21) 두 마을은 밀접히 관련되었는데, 이는 관광촌화 직전 베릿내 어촌의 가구주 출신지가 전체 11명 가운데 6명이 대포동이었다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중문관광어촌(주), 1991)

중문동은 어업활동과 관광관련 활동을 병행하는 반면, 대포동에서는 관광관련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것이다. 중문동의 어업활동과 관광관련 활동의 병행은 잠수들이 수산물 조리점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직접적으로는 중문관광단지와의 인접에서, 간접적으로는 잠수어업 외의 다른 생산활동인 밀감농사에 대한 참여 부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업생산물의 이용정도에 있어 중문동 수산물 조리점의 상품은 멍게와 낙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부에서 조달되나, 대포동 횟집의 수산물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외부로부터 반입되고 있다.

거주활동의 공간적 결합도에 있어서는 중문동의 수산물 조리점 참여자들은 배후어촌에 거주함으로써 공간적으로 통합된 반면, 대포동은 공간적 통합뿐만 아니라 서귀포의 중심지와 제주시에서 통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관광관련 활동의 지역화 정도는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이 높고 거주활동이 공간적으로 통합된 중문동 어촌이 대포동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4. 민박

민박이 위치하는 어촌은 대체로 해수욕장 인접 어촌과 도서어촌으로 구분할 수 있다.[22] 그러나 두 어촌에 있어 민박 기능은 차이를 보이는데, 해수욕장 인접 어촌은 임시적인 반면, 도서어촌은 상시적 경향을 보

22) 북제주군의 경우 민박 211곳(1995년)의 위치는 해수욕장 주변 123곳, 도서 54곳, 낚시터 13곳, 목장 18곳, 기타 3곳 등으로, 해수욕장 인접 어촌과 도서어촌은 북제주군 민박의 83.9%, 북제주군 어촌민박의 93.2%에 이른다(북제주군 내부자료).

인다.

1) 해수욕장 인접 어촌

① 제주도 전체

해수욕장 인접 어촌은 어촌의 일반적 관광기능인 민박, 낚시어선, 횟집 등 모든 종류가 분포한다<표 8>. 민박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은 함덕리와 협재리로 각각 135가구와 76가구인데, 이는 해수욕객이 많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문동은 해수욕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이 밀집된 중문관광단지와 인접해 있어 민박가구가 매우 많은 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낚시어선은 제주시의 이호1동과 제주시에 인접한 함덕리에 많이 분포하는데, 각각 13척과 11척이다. 횟집은 제주시의 이호1동과 소도읍 어항이 위치하는 하모리와 화순리에 5~6곳으로 많이 분포하며, 여타의 해수욕장 인접 어촌에도 모두 2곳 이상씩 분포한다.

〈표 8〉 해수욕장[23] 인접 어촌별 관광기능 분포

해수욕장 인접 어촌			민박 (1999년)	낚시어선 (2001년)	횟집 (2000년)
제주시		이호1동	12	13	5
서귀포시		중문동	30	4	2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	25	2	2
	한림읍	협재리	76	4	2
	조천읍	함덕리	135	11	3
	구좌읍	동김녕리	15	2	3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24	2	6
	표선면	표선리	7	2	4

23) 시·군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산읍	신양리	24	3	2
	대정읍	하모리	2	4	5

자료 : 민박 : 제주도, 1999, "관광정보",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낚시어선 : 제주시는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서귀포시는 주민면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내부자료.
횟집 : 한국통신, 2000, 전화번호부.

② 사례어촌

해수욕장 인접 관광어촌으로는 제주도의 대표적 해수욕장이 위치할 뿐 아니라 바다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를 사례로 하였다.

함덕리의 인구는 1997년에 5,821명으로, 리 단위의 인구수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편에 해당된다. 1997년의 인구는 30년 전의 5,479명에 비해 약간(6.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어촌계원 수는 89명에서 81명으로 약간(9.0%) 감소하였다.[24] 이는 함덕리가 북제주군에 속해 있지만 제주시와 가까운 위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수욕장에 최초로 편의시설이 들어선 것은 1961년에 멸치어업이 소멸되면서이고(김순이 외, 1986),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발은 1970년대 말~198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1980년과 1998년의 해수욕장 이용객 수를 비교해보면, 함덕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55.5% 증가했으나, 제주도 전체의 해수욕장에 대한 함덕해수욕장 이용객의 비중은 41.9%에서 24.0%로 감소하였다.

해수욕장과의 인접에 따라 위치한 어촌의 관광기능으로는 바다낚시, 수산물 조리점, 낚시도구 판매점, 민박, 호텔·여관 등이 있다. 함덕리의 관광관련 활동에 있어 어업활동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바다낚시는 어

24) 제주도, 각 년도, 제주통계연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각 년도, 어촌계현황.

로어업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수산물 조리점에서는 바다낚시객을 대상으로 해서 어로어업의 생산물을 일부 이용하고 있다.

관광관련 활동 종사자의 출신지와 거주양식은 생산활동 간 결합 형태 및 생산활동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관광관련 활동과 기존생산활동 간 병행과 관광관련 활동 간 병행의 종사자는 모두 토착민, 전업의 관광관련 활동인 횟집 종사자는 토착민 또는 도내이주민 등이고, 이들의 가구는 거의 함덕리에 거주한다. 반면에 숙박기능의 전업 종사자는 모두 도외이주민이고, 인접한 제주시에서 통근하는 경우도 대규모 호텔 직원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광관련 활동 종사자의 공간적 거주양식은 관광어촌에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도서어촌

① 제주도 전체

도서어촌이 위치하는 섬은 북제주군의 비양도, 추자도, 우도 등과 남제주군의 가파도, 마라도 등 모두 5곳이고, 행정리 단위의 도서어촌은 모두 12곳이다. 도서어촌의 대표적 관광기능은 민박과 낚시어선이고 <표 9>, 이들의 입지는 각각 섬으로의 접근수단 한계와 섬이라는 자연조건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민박은 모든 곳에 분포하는데, 우도의 서광리, 오봉리 등과 추자도의 대서리, 신양리, 예초리 등은 모두 10곳 이상이고, 특히 우도의 민박은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서광리와 오봉리는 모두 24곳씩이다. 낚시어선은 추자도의 대서리와 신양리에 많이 분포하고, 낚시어선이 분포하지 않는 곳은 섬과 인접한 어촌의 낚시어선이 이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민박, 낚시어선 등과는 달리

횟집은 마라리, 천진리, 비양리 등에만 분포한다.

〈표 9〉 도서어촌별 관광기능 분포

도서어촌			민박		낚시 어선 (2001년)	횟집 (2000년)
			(1995년)	(1999년)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리	4	5		1
	추자면	대서리	13	15	5	
		신양리	9	13	9	
		예초리	9	11	1	
		묵리	2	9	2	
		영흥리	2	3		
	우도면	서광리	10	24		
		오봉리	2	24	2	
		조일리		9	1	
		천진리	3	6		2
남제주군	대정읍	가파리	1	1	2	
		마라리	5	7		1[1]

주 : 1) 전문 횟집은 아니나 횟집과 다른 생산활동의 병행이 이루어지는 곳은 2000년 현재 6곳임.
자료 : 민박(1999년) : 제주도, 1999, "관광정보", 제주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민박(1995년) : 북제주군은 내부자료, 남제주군은 주민면담
낚시어선 :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내부자료
횟집 : 한국통신, 2000, 전화번호부.

다섯 곳의 섬 가운데 추자도는 거리와 속성에 있어 모두 제주도보다는 전라도에 보다 가까우며, 우도와 마라도의 관광촌화는 비양도와 가파도보다는 훨씬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도서 관광어촌으로는 관광기능이 많이 분포하는 마라도와 우도 가운데 다른 사례어촌인 종달리와 가깝지 않은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가 선정되었다

② 사례어촌

모슬포에서 11㎞ 떨어져 있는 마라도는 중심도시인 대정읍에 일상적 통근 또는 통학이 불가능하나, 생산물의 판매나 급양 활동에 있어 하루에 왕래할 수 있다. 마라도 상주가구의 변화를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1981년 20가구였던 것이 1991년에는 16가구로 감소했으나(이기욱, 1986;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1991), 2000년의 가구 수는 30가구로 1991년의 약 2배에 이르렀다. 현재의 가구수가 10년 전 정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관광지화에 따른 이주민 유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광관련 활동 종사 가구는 전체 30가구 가운데 23가구(76.7%)이고, 관광관련 활동 종사가구 23가구 가운데 도외이주민과 도내이주민은 각각 6가구와 3가구로 이주민이 39.1%를 차지한다.[25]

마라도는 어로어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기능에서 필요한 어로어업의 생산물을 외부에서 들여오고 있고, 마라도 잠수어업의 수산물은 섬 내부의 관광기능 대부분에서 이용되고 있다.

관광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출신지와 거주지는 종사 형태와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관광관련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토착민들이, 이후에는 이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였고, 거주지에 있어서도 대체로 토착민들은 마라도에, 이주민 가족들은 마라도와 제주도(濟州島)에 나누어 거주한다.[26] 그리고 전업의 관

25) 관광관련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7가구로, 이 가운데 토착민은 6가구이다. 토착민은 마라도에 인접한 가파도와 모슬포에서 이주한 이들도 포함시켰다. 한편, 전체 20가구의 토착민 중 19가구가 친인척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26) 토착민들은 1명을 제외한 4명 모두 1990년대 중반 이전에 관광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거주지는 모두 마라도이다. 이와 반면에 이주민들은 6명 가운데 4명이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관광관련 활동에 참여했고, 가족들의 거주지는 마라도와 제주도(濟州島)로 나누어진다.

광관련 활동에 있어서는 기념품·필름점, 승마장 등은 1990년대 중반에 이주민이 종사하기 시작한 반면, 유람선관련기능, 포장마차, 자전거대여점 등은 1990년대 말 토착민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이 토착민의 참여가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부문에 먼저 참여하기 시작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집단은 공간적 거주양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주민은 애월읍과 제주시에서 통근하거나 마라도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반면, 토착민은 모두 마라도에 거주한다.

Ⅳ. 시사점

어촌의 관광지화는 어촌의 미래이다. 어촌은 농촌의 일부로 간주되거나 농촌에 가려져 왔고, 어업활동은 어업자원의 감소, 어장의 황폐화,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쇠퇴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어촌은 주민의 어업활동 장소로부터 외부인이 찾고 싶어하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어촌이 바다와 땅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땅으로만 이루어지는 농촌보다 다양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촌의 관광지화는 어촌의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이 농촌지역의 발전방안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어촌지역에 있어 어촌관광이라는 발전방안은 보다 절실하고 용이한 셈이다. 관광은 일상생활 중에 많이 대해보지 못했던 것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다를 갖고 있는 어촌은 그 매력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관광은 다양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촌은 풍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어촌의 바다는 땅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둘을 분리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바다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땅을 중심으로 그 가치를 인식했을 뿐이다. 어촌의 바다와 땅은 어항을 매개로 통합된다. 어업활동이 바다에서 땅으로, 땅에서 바다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어항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어항은 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땅으로 전달하며, 땅에서 어업활동을 준비하고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바다와 땅의 통합은 어촌의 잠재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 인구의 변화를 파악하고, 어촌의 관광기능 분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어촌의 관광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시사점은 어촌 관광의 특화와 네트워킹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어촌 관광기능의 특성화에 대한 것이다. 어촌의 인구변화와 관광기능의 분포를 살핀 결과 어촌의 인구변화와 관광기능 중 횟집은 중심도시와의 거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광기능 중 민박, 체험어장, 낚시어선의 분포는 해당 자원의 분포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자원 분포의 영향을 받는 관광기능들은 그렇지 않은 관광기능에 비해 해당 어촌의 어업활동이나 생활과의 연관성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어촌의 관광기능은 해당지역의 특수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격지 어촌이면서 관광기능이 분포하지 않는 어촌일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격지 어촌에서 기존 어업활동의 유지와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해녀 자원과 포구경관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특화의 정도가 매우 높아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관

광자원은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가 용이하고, 다른 지역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관광자원의 매력도는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촌 관광기능의 네트워킹에 대한 것이다. 사례어촌의 관광기능에 대한 조사결과, 어촌 관광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이려면 관광기능과 해당지역 간 네트워킹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대표적으로 관광관련 활동의 어업활동과의 관련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관광활동이 어업활동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정도와 어업 생산물의 이용 정도로써 파악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관광활동이 어업활동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곧 어업활동 종사자에게 있어서는 어업활동과 관광관련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어촌의 경우 바다의 관광활동 가운데 바다낚시는 어업활동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해안 관광활동의 경우 횟집에서는 어업활동의 생산물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단지 잠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산물 조리점을 중심으로 잠수어업의 생산물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어촌 관광기능의 네트워킹이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높이려면 바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다와 해안이 통합되어 있다는 어촌공간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산활동과 관광객의 관광활동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의 생산활동 차원에서는 바다와 해안이라는 공간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공간뿐만 아니라 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도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바다와 해안의 주민 생산활동 간 연계의 내용으로는 바다의 어업활동과 해안의 관광관련 활동 간 연계, 바다의 관광관련 활동과 해안의 어업활동 간 연계, 바다의 관광관련 활동과 해안의 관광관련 활동 간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계는

어촌의 관광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기존 어업활동의 유지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관광객 차원에서의 공간적인 네트워크화 방안은 어촌 내부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바다가 자연환경과 생산공간에, 해안이 인문환경과 생활공간에 대체로 해당되므로 바다의 자연환경과 해안의 인문환경, 바다의 생산과 해안의 생활 등의 연계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지역 생태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결국 보전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오래 관광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광민, 2004, 『제주도 포구 연구』, 제주문화 원류찾기 3, 각.

고동희 편, 2000, 『고산향토지』, 고산향토지 발간위원회.

김순이 외, 1986, 『(우리나라 으뜸마을) 함덕리』, 반석.

김영돈, 1999, 『한국의 해녀』, 민속원.

김태보 외, 1996, 『제주도 beach 관광의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상공회의소.

대포동 마을회, 2001, 『큰 갯마을』.

목지 오홍석박사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편, 1995, 『한국의 농어촌과 환경연구』.

송경언, 2006, 『어촌과 관광』, 한국학술정보원.

송성대, 1998,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송재호, 1997, 「국제관광과 섬(島): 변화와 아이덴티티」, 『제주도연구』 14, pp.193-224, 제주도연구회.

유우익, 1988, 「농촌지역 하위중심지체계의 개선방안」, 제6차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워크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97-134.

_____, 2005, 「관광개발과 환경파괴-좁은문으로 들어가라」, 『한국관광정책』 2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50-57.

이기욱, 1984, 「도서문화의 생태학적 연구: 제주도 인근K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상철, 1998,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사회론 2』, pp.99-136, 한울아카데미.

전경수, 한상복, 1999, 『제주 농어촌의 지역개발』, 서울대학교 출판부.

제민일보, 「제주의 포구」, 1992년 6월~1995년 1월.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1991, 『제주유인도학술조사』.

제주발전연구원, 2001, 『자연친화적인 마라도 종합발전계획』.

종달리, 1987, 『지미의 맥: 종달리지』.

중문관광어촌(주), 1991, 『베릿내(성천포) 학술조사보고서』.

한상복, 1976, 「어촌과 농촌의 생태적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8, pp.87-90.

柿本典昭, 1987, 『漁村研究 : 水産地理學への 道標』. 大明堂, 東京.

淡野明彦, 1998, 『觀光地域の形成と現代的課題』, 古今書院, 東京.

齊藤輝二, 1981, 『漁業集落計劃に關する基礎的研究: 漁業集落の空間構造の解明』, 京都大學博士學位申請論文.

Butler, R. W., 1980, "The concept of a tourist area cycle of evolution: implications for management of resources," *Canadian Geographer*, 24(1), pp.5-12.

Hall, C. M., Lew, A. A., 1998,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Longman, England.

Kakimoto, N., 1987, "Fishing communities and the geography of fishery,"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60(Ser.B)(2), pp.203-211.

Keller, C. P., 1987, "Stages of peripheral tourism development - Canada's Northwest Territories," *Tourism Management*, 8(3), pp.20-32.

Lockhart, D. G., Drakakis-Smith, D. 1997, *Island Tourism: Trends and Prospects*, Pinter, London.

Pearce, D., 1995, *Tourism Today: A Geographical Analysis*, Wiley, New York.

Ringer, G. (ed.), *Destinations: Cultural Landscapes of Tourism*, Routledge, London.

Young, B., 1983, "Touristization of traditional Maltese fishing-farming villages," *Tourism Management*, 4(1), pp.35-41.

Abstract

The Population Changes and Tourist Facilities of Fishing Villages in Jeju Island

- focusing o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

Song, Kyung-un*

Korean fishing villages with agriculture as well as fishery have been on the decline since 1970's, but tourism have changed the villages since 1980's. The rural villages of Jeju Island have great potential no less than the city area. The fishing villages have more potential, in that the village is made up of sea as well as la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population changes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to consider tourist facilities in the fishing villages and to suggest a policy direction for tourism development. Major findings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pulation had been on the decrease and the fishing population on the increase in the remote fishing villages from the central city. Second, the tourist facilities in the fishing villages are composed of a tourism fishing boat, a fishing experience ground, a sliced-raw-fish restaurant, a homestay, etc. The sliced-raw-fish restaurant is less in the remote area from the central city and the location of the other tourist facilities are influenced by the tourist attractions of the villages. In addition, the spread effect of tourism is more in the networking of tourism and fishing. The results

*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mply that tourism development in the fishing villages need the uniqueness and the networking of the contents.

Key Words

Jeju Island, fishing village, tourism impact, networking

교신 : 송경언 151-746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E-mail : kusong2030@freechal.com 전화 : 011-9554-5011)

최초 투고일 2007. 1. 4
최종 접수일 2007. 2. 2